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24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1. 27(목) 14:07~16:09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제32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해서 7인의 위원이 회의에 참여하고 계시고 상임감사님과 감사실장 그리고 안전보고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기획조정부장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위원님을 포함하여 성원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주)한국문화진흥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오늘 회의는 불참 하였습니다. 따라서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성원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위원 12인 중에서 12인 모두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정숙 위원님과 박경주 위원님, 전고필 위원님, 이진희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은 영상회의를 통해 접속하고 계십니다.

##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온라인 접속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까지 포함하여 위원장 포함 12인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극장운영부의 이유진 과장을 포함한 8인의 사무처 직원이 참관을 신청하여 회의에 참관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부장은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전차(前次) 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22차 전체회의에서는 2건의 안전이 상정되어 1건이 원안결, 1건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23차 안전으로 상정된 1개의 안전은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전차(前次)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전차(前次) 회의의 결과에 대하여 궁금해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으시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324차 전체회의에는 총 3개의 의결사항이 올라와 있고요. 9개의 보고사항과 1개의 논의사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2022년 정시공모 1차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과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 그리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기사업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사항인 2022년 정시공모 1차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논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건은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안건번호 제924호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1차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문학, 시각, 공연, 다원 등 총 697건이 신청되어 224건에 26억 5,600만 원을 지원 결정한 심의결과입니다. 8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진행경과는 저희 정기공모사업 전체 일정에 맞춰서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이 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공모와 달리 1월에 심의를 올리게 된 배경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의 지원건수가 다른 사업보다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최소 20일 이상의 사전검토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를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모두 서류심의를 통해서 지원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원심의 구성 및 운영은 전체위원회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총 30인이었고요. 비율로 보면 신진 60%, 여성 50%, 비수도권 26.6%로 구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원심의는 의결 받은 기준에 따라서 심의운영규정 및 처리 기준을 준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의 지원심의 결과는 문학 분야에 총 27건 신청 중에서 13건 6,800만 원을 결정했고 시각예술 220건 신청 중에 68건에 6억 2,8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연예술은 407건 신청에 128건 선정에 17억 3,800만 원 그리고 다원예술은 43건 신청에 15건이 선정되었고 2억 2,000만 원입니다. 17억 3,800만 원 공연예술에 대한 세부 장르 내용은 중간 표에 있습니다. 연극·뮤지컬 8억 600만 원, 무용 1억 9,600만 원, 음악 5억 5,600만 원, 전통예술 1억 7,000만 원 등 총 17억 3,800만 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지원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신청비율이 26.7%가 비수도권이었는데 지원 결정비율에서는 26.3%로 약 0.4% 미달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균형에 맞춰서 지원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심의 제척 및 회피 현황은 총 11인의 심의위원님이 총 28건에 대한 심의 회피를 해 주셨고요. 28건의 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의결이 되면 오늘 바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문학 분야부터 결정내역과 심의총

평을 자료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애첫지원은 의견이 없으셨고요. 저희 담당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예술가첫지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0억의 예산으로 경쟁률이 2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과다한 것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30억으로 증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0억으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선정비율이 30%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요. 추가적으로 개인지원 외에도 그룹형이라는 지원트랙을 신설해서 총 선정건수는 224건이지만 이 건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예술가의 수는 2배가 넘습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약 4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청년예술가들에게 생애첫지원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의 분량이 많아서 1월에 심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은 건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시고 검토를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생애첫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서툰 신청서가 상당히 많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 공모 때는 생애첫지원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신청서 작성에 대한 교육도 추진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번호 제924호 2022년 정시공모 1차 청년예술가 생애첫지원 지원심의 결과를 담당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갖는 의의와 드러난 단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포함한 보고가 있었고요. 오늘 위원회 회의자료 6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 주실 텐데요. 본 안건은 위원회의 사전의견서에 접수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을 하시면서 의결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정종열 위원 :** 10페이지를 보시면 200건 이상 지원신청사업이 접수된 분야인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에 한해서 심의위원 개별 온라인 사전채점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시각예술은 200건이 넘기는 했지만 음악은 200건이 아니라 나누게 되면 1백 몇 십 건이 되는데요. 음악도 사전 온라인심사를 하신 건가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공연예술은 통합심사를 해서 사전채점을 하고 오셨습니다.

**정종열 위원 :** 그래도 144건이나 200건이나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기간은 어느 정도를 주시고 심의를 하시도록 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분야의 전산 상 평점 집계방식의 오류로 인해서 오류 해결 후 채점결과 재확인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도 했고 회의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온라인 사전채점은 시각예술분야와 공연예술분야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사전 검토기간은 저희가 자료를 12월 중순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심의까지 최소한 3주 정도의 검토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산 상 평점 집계방식 오류는 NCAS 시스템 상에서 메뉴 구성의 오류 때문에 최고·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위

위원들 전체 평균 평점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심의회의 당시에 공개해 드렸던 점수표가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평점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예술, 공연예술은 심의가 종료된 후에 발견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영상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했고요. 시각예술 분야의 위원님들께서 다시 회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셔서 시각예술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에 1차 심의를 했고 1월 13일에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1월 20일에 추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연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점수에서 오류가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인 순위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술은 위원님들께 점수만 확인을 드리고 추가 회의는 하지 않고 종결한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심의가 원만하게 제대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내용 확인이었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해 담당부장의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본 안건은 지원사업 결과인데요. 의견이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청년예술가생애컷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요청한 대로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해 반대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없이 모두 찬성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 사항을 확인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지난 1월에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보고를 드린 안건입니다.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의결안건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부장은 본 안건을 보고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을 보내주신 경우에는 사전의견에 대해서 연속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42쪽입니다. 안전번호 제925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당인리 문화공간에 대한 위탁운영 결정에 따라, 공간 운영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략사업본부 내에 문화공간조성기획팀을 신설하여 조직설계에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제6조에 조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조직에 보시면 전략사업본부 ‘문화공간조성기획팀’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에 있는 조직표는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위원회 정기 간담회 때 많은 걱정 어린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 서면으로 홍태림 위원님께서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세부 조사 및 분석이 진행될 테니까 이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원활하게 되고 문화공간조성기획팀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논의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념해서 문화공간조성기획팀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지난 화요일에 예술정책관과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내방하여 나주 청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문체부나 예술위원회나 당인리 문화공간을 완공해서 운영하는 데 여러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자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매

스스터디스의 조민석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팀을 맡게 된 문화공간조성기획팀이 현장답사를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감사님도 함께 가셔서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주실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전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전의견과 관련된 부분을 연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문화공간조성기획운영팀에서 조기에 정착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 실시설계 단계에 운영방향이 반영되도록 일정관리를 정확하게 진행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는 문화공간조성기획팀에서 유념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번호 제925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25일에 우리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과 예술정책과장, 당인리 문화공간을 담당하는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과 함께 진행한 실무협의를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당인리 현장 방문과 관련된 보고도 있었습니다. 흥태림 위원께서 사전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답변과 요약보고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이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본 안전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흥태림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흥태림 위원 :** 내일 현장답사를 가신다고 했는데요. 내일 현장답사를 기점으로 실시설계를 하시는 팀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문화공간조성기획팀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위원회에서도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내일은 현장답사를 하며 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간담회 때 논의를 한 것과 같이, 이 안전은 당인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함에 따른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공간조성기획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핵심과 관련한 논의는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논의가 있다거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할까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추가의견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의는 없고 모두 찬성을 하시나요? 찬성을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죠. 예, 반대가 없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셨으므로 안전번호 제925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세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2022~2026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 계획(안)입니다. 계속해서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고요. 보고를 마치시면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사전의견에 대해서 연이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해 주십시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안건번호 제926호 중기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서 1월 말까지 중기사업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전반적인 국가재정 수입이나 환경 등을 보고 예산의 실령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본예산은 5월 말에 문체부와 협의해서 최종 편성되어 제출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47쪽의 중기사업계획(안)입니다.

이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내용 대비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중기사업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없이 중기사업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7쪽의 지출변동 내역 및 사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의 피해 회복과 예술 창작 여건의 안정화를 위해 2022년도에 문학 분야와 시각예술 분야의 예산이 늘었기는 합니다만, 우리 창작예산의 총량을 확대하는 기조는 계속 가지고 갈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그리고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의 다원예술활동지원 등도 모두 증액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시설 안전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 리모델링 추진의 건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화요일에 예술정책관이 나주 청사에 방문하여 아르코예술극장과 아르코미술관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프라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중기적으로는 기재부 설득이나 방향에 맞겠다는 것에 공감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분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고도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등에 대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후원 사업 관련하여 기업 후원 매칭지원 펀드 확대를 위해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사업 등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9쪽 향유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에서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지원 단가를 확대하면서 기초생활,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 외에 위드코로나 상태에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역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 지원을 통한 예술의 가치 확산으로 아르코공공예술 사업도 증액해서 기초문화재단이나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공공예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총량을 늘려 놓았습니다. 기후변화, 행동하는 예술의 해 추진과 같이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타 섹터와 예술계가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되어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50쪽에서 52쪽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4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중기사업계획을 위원회 의결을 받아 1월말에 제출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지출한도액을 문체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4월초가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보 하게 되고 이때부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위원회 의결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의결된 내용이 2023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6월, 7월, 8월에 심의를 하게 되고 소위 예산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이 8월 말에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인 국

회 예산안 심의단계로 9월부터 넘어가고 국정감사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월 말에서 11월이 국회 예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각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의견 등은 언제든지 주시면 논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는 박경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전번호 제926호 2022~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기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회의자료 45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시며 본 안전에 대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홍태림 위원께서 “기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예술위원회가 현장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금운용비를 계속해서 증액할 수 있는 전략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류재수 부장으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기금운용비 부분은 홍태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심사는 문화예산과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반영되기가 그래도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비는 과가 다릅니다. 기금운용계획과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기금운용계획과에서는 인건비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아예 한도 자체를 지정해 놓습니다. 사실상 증액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운용비 내에서도 인건비 외에 다른 소요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예술현장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예산 등에 대해, 기금운용비에서 사업비로 편제를 이동해서 증액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연구 부분의 예산이 웹진 등으로 해서 반영이 되었던 부분도 그러한 대응전략 속의 일환이었는데요.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은 계속해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나 아트누리 등 정보시스템 사업 부분들도 사업비 속에 편제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태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제가 여기에서 기금운용비를 적시한 게 생각난 것은, 기관 소위원회나 TF운영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것이 신경 쓰여서 여쭙본 것인데요. 그러면 소위원회 운영비는 매년 노력하지만 늘지가 않잖아요? 1억 2,000만 원인가 1억 4,000만 원 선이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통 소위원회나 다른 TF 단위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른 부서의 예산을 얻어 와서 도움을 받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소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로 편제 이동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소위원회 운영비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표현을 이용하여 증액시도를 했을 때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연구비에 현장과 함께 하는 활동지원의 내용으로 보완하여 예산을 증액했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총량을 키워서 활용하는 전략을 이용하여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의 직책수행경비 같은 경우에도 전액 삭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당시 영진위와 공동대응을 하여 복원을 시켰습니다. 기금운영비 상에 있는 것은 정말 증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책연구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전반적인 소위원회나 TF운영소요를 봐서 정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관에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온 것이 2018년 11월의 일이었는데요. 그때 저에게는 여러 가지 미션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른바 우리 기관을 정상화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정상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습디만, 위원회가 2016년 이전까지 5억 이하의 기관운영비를 가지고 있던 기관이었는데요. 블랙리스트 발생 이후에 페널티를 받아 기관운영비를 1원도 배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후 회복이 되지 않은 형편이라서 우선 2019년 예산을 세우면서 3억 원을 복원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원을 시도했는데 복원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감사님이 임명되어왔을 때도 이 부분에 관한 주문을 했었습니다. 기관운영비의 회복에 대해서 이른바 위원회를 정상화하는데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착안하여 기관운영비 복원 활동을 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블랙리스트 발생 이전에 있었던 체계나 시스템으로 복원하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관이 위축될 수는 없으니까 소위원회 운영비 등은 항목을 좀 달리 대응해서 적어도 소위 활동이나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흥태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기관운영 정상화’라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유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답변을 조금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역시 간담회 때 저희가 충분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논의 했고 그때 논의에서 나온 쟁점들이 새롭게 중기사업계획(안)에 어떻게든 반영될 것이며, 이후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순 등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수순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의결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건번호 제926호 2022~2026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없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해서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결안건 3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회의를 개최하면서 설명을 드린 대로 8개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부장은 보고안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보고사항은 총 8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관련 건에 대해서는 공연예술부 홍승욱 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가 1건 있고요. 예술극장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6개의 소위원회 및 TF 활동보고가 포함되어 총 8개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역시 일괄 8개를 상정하고 회의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보고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보고안건인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 사업 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결과를 공연예술부 홍승욱 부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5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원적격성 심사와 지원대상 결과는 2021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진 공연단체가 사용한 무대시설 포함한 대관료를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최대 9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단체별로는 연간 3,000만 원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지원신청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일간 진행이 되었고요. 총 845개 단체 1,041개 공연이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체 신청규모는 약 37억 정도의 규모였고요. 각 분야별로 이렇게 신청한 내용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적격성 심사는 네거티브 방식의 행정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공연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극장주와 공연단체 간 대관료가 합당하게 계약되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대관료를 지불하는 것이 잘 입금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필수 제출서류를 기

반으로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사의 기준이나 심사절차와 내용들은 지난 회 1회차, 2회차 보고 때도 있었던 내용들이라서 간략하게 생략하고 59쪽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결정 결과는 총 708개 단체에 868개의 공연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지원 결정액은 20억 9,100만 원 정도가 결정되었고요.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제외 대상사업들은 약 173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공모안에도 나가 있고 유의사항이라든가 단체들이 누락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도록 2번, 3번에 걸쳐서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적합성과 서류 미비, 신청 요건, 중복 지원 등을 173건 정도가 지원 제외대상으로 행정 결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홍태림 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시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술인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국적자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본 사업에서 음악 분야의 1명이 해외 국적자로 신청하셨는데요. 저희 쪽에 예술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가 요청을 드렸고 신청하신 분으로부터 “예술인 증명이 없다.”라는 내용을 받아서 아쉽게도 지원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태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검토의견은 “2022년도에도 본예산 25억 외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 초에 문체부와 예술위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 기금 수지차를 고려해서 일반회계로 120억 정도를 요청했고요. 문체부에서도 120억을 갖고 지금 현재 추경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추이를 살펴보고 추경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2022년도 대관료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위원님들께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 56쪽부터 90쪽 사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 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결과보고를 접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고사항이라든 하더라도 지원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면 논의를 마땅히 이어갈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 중에 미리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라는 내용에 따라서 예술인증명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액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란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사전의견서로 의견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담당부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가급적이면 많은 팀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지금 부적격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173개 공연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복 지원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서류 미비가 110건이나 되는데요. 필수서류 제출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공지에는 문제가 있지 않고요. 잘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단체들이나 신청주체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신청하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다수로 뭔가 미비가 된다는 부분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정유란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내용들은 저희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네거티브한 방식들로 행정심사를 진행하다보니, 사실 필수제출 서류라는 것들이 “진짜 공연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대관료가 지불되고 입금이 되었는지?” 이런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야 하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반 민간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대관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극장주와 대관단체 간 계약서에 의존해서 봐야 되고요. 단체 대표가 반드시 신청하는 방식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가가 대관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사 등과 같이 하지 못하는 소규모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통장사본들도 매회 공연마다 단체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사본들도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2022년도에 추경예산 편성(안)이나 본예산을 준비할 때는 조금 더 꼼꼼히 지켜보고 그런 것들이 개선돼서 진짜 대관료가 필요한 예술단체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아까 홍태림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내용 중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용어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활동 미증명 외국인”이라든가..... 왜냐하면 예술활동증명을 한 분은 지원신청을 하도록 바꿨으니까 그게 보여지게 용어도 바꾸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이것은 지원심의 공통사항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원총괄부와 함께 내용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이해하기가 쉽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내용 안에서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정종열 위원 :** 이번에는 심사가 없는 관계로 심사총평에 사업개요 및 지원취지, 예산배정 종합의견을 잘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종합의견 마지막에 이 사업이 “다시 25억 규모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말은 사실 추경에서 다시 추가되지 않으면 축소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공고문 게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패스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심사평을 대부분 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 공고를 내실 때는 이 사항을 얘기하셔서 작년과 다르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먼저 써주시는 게. 올해하고 자꾸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연도 공모게시를 할 때 정종열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그런 설명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것들을 제외하는데 단순히 열거해서는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외국인은 제외)”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대안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문화다양성 측면에서는 친절한 표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지금 즉시 대안이 안 나온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할 문제로 보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접수를 받아야 지원이 확정됨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를 받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2021년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 사업 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결과를 원안대로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사항은 예술극장장 임용 결과보고입니다. 이것은 인재성장부 쪽에서 보고를 하셔야 할 텐데 어느 분이 준비되어 있죠? 인재성장부가 지금 같은 시간에 다른 사안이 있죠? 그렇다면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해 주세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91쪽 예술극장장 임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1차 채용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자격기준과 심사방법, 단계별 선발배수 등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게 모집공고가 이루어졌고 1월 7일 서류심사를 통해서 12인 중에서 5인이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1월 24일 월요일에 면접심사가 이루어졌고 면접심사에서 최종 1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선임되시는 예술극장장은 92쪽에 약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 동의 강양원 대표이자 연출이 최종적으로 극장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후속 일정은 내일 서류 및 면접심사위원들을 포함해서 최종 임용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비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문의가 오더라도 말씀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월 7일에 정식 임명장을 받고 극장장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기획조정부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이것은 너무 사소한 질문인데요. 서류심사 전에 몇 분 정도가 응모를 하셨나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91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응모를 하신 분은 12인이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극장장 임용 결과보고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장의 공석이 길었으므로 빠른 시간에 임용하여 극장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소위원회와 TF개최 결과보고를 차례대로 보고 받을 텐데요. 제25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 제37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 제7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제11차 코로나19대응TF 회의 개최 결과, 제5차, 제6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 제6차, 제7차 청년예술TF 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일괄해서 보고사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요약해서 보고하시고 소위원장들께서 추가로 보고하실 게 있으시면 보고를 하시죠.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25차 정책혁신 소위원회가 1월 20일 목요일에 개최되었고요. 논의결과는 9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2021년도에 3개 워킹그룹으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를 체크하고 2022년도 활동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는 정책혁신 소위원회 차원의 제안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각각의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별도로 정책제안서를 만든 후 저희 백서와 함께 8기 위원회에 제안할 내용들이 연계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을 보시면 2월까지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3월에 관련된 정책제안서를 가지고 외부에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각각의 연구에 대한 내용이라서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 보고는 일단 사무처에서 요약해서 보고를 하시고요. 소위원장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께서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에 대해서 추가하실 말이나 강조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보고를 잘 해 주셔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정책 소위는 그동안 연구와 진행한 것을 2월까지 다 모아서 정리하고 3월과 4월에 사회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결과물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개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모아서 논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연이어서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까지 3개의 소위원회 보고를 모두 묶어서 의견을 나눠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보고를 받아볼까 합니다. 37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실무선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37차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는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정책 제안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문학집필공간의 운영 문제, 웹진 문예지의 저작권 문제,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정상화 촉구 제안, 지자체 공연계약 취소에 대한 보상 매뉴얼 마련 제안, 연습공간과 관련된 대관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음 차에 계속 말씀드릴 내용과 연계가 되었고요. 저희가 1월 현장소통 소위원회 워크숍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으로는 나주에서 워크숍을 진행했고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웹진 문예지, 다원예술 지원사업 정상화 촉구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올라간 상태고요.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워크숍은 추후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홍태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예술단체들 지원사업 서비스 관련 진행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올리고 현장소통 소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태림 위원님께서 고객응대 매뉴얼이나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해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아르코 전화응대 매뉴얼을 서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내부고객 응대보다는 친절함에 초점을 둔 내용이었고요. 2021년도 10월에 지원총괄부에서 정시공모 전에 민원전화에 대한 원활한 응대 안내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을 유형화 한 후 성희롱·성폭력이나 언어폭력이나 반복 전화와 같은 몇 가지 유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서로 관련된 내용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혁신부에서는 고객응대 매뉴얼 제작을 해 왔는데요. 기존 지원총괄부에서 나눠준 것과 다르게 포괄적인 기본지침, 유형별로 세분화된 지침 그리고 고객응대 근로자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게 12월 달의 상황입니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 나주나 서울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서로 물어보고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기는 했었는데 이제 나온 매뉴얼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비스 응대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추가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홍태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홍태림 소위원장님께서 강조하거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저희 소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공유해 드리고 질문도 함께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 공연계약 취소 보상 매뉴얼에 대한 정책제안도 있었습니다. “지자체 공연 취소에 대한 보상 매뉴얼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인데요.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공공영역에서 공연 취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해하는 예술인과 단체가 여전히 많습니다. 작년에 이런 질문이 저희 쪽에 들어왔고 최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소통소위에서 이런 제안이 올 때마다 코로나19 관련 공연취소 보상에 대한 쟁점과 유관기관들의 대응자료 사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업데이트해서 정리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공유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 쪽으로도 비슷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요. 작년 12월 장관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해서 산발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테이블을 통합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컨트롤타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컨트롤타워를 이제라도 수립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아는 바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장관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렇지만 작년 3월에 장관간담회를 하고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12월 2차 장관간담회를 할 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차가 큰 것 같아서요. 간담회를 하고 난 직후에 저희가 제안하고 논의하고 싶었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느 시점에 정리되어 계속 피드백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즉시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연이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장관간담회 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더 확대되고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 있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장관님과 공동연수가 끝나고 문체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TF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하였는데,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정책과 쪽에 다시 확인을 한 후에 2월 간담회나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요원 감사 :** 제가 하나만 보완해서 류재수 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19 지자체 공연계약 취소에 대한 보상 매뉴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예술가나 예술단체로부터 이런 것들이 제안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술창작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예술위에서 뭔가 기능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를 공공에서 잘 지키기만 해도 이런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잖아요. 지자체에서는 갑작스럽게 “중앙재난본부에서 이런 것은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취소를 하면 실제로 공연을 준비한 것들이 무산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상황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표준계약서를, 또 정부에 민간이 공급하는 영역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급하게 오래 검토해야 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문체부에 바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그리고 표준계약서 이행을 공공이 지켜주는 것에 대해 관리를 잘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 또는 정기위원회 때 문체부 쪽의 의사를 확인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받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1월 11일에 개최가 되었구요. 이때 논의한 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서치 부분에 대한 내용 공유가 있었구요. 두 번째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진행 처리 규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무처에서 준비를 하여 이진희 위원님과 협의 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부분,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구요. 이후 관련된 내용을 받으면 검토해서 위원회 회의에서 다루겠다는 것인데요.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이런 규정도 마련이 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할 쟁점이 있다면 이후에 이진희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정책관이나 예술정책과 그리고 우리 성평등소위원회가 함께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상태입니다. 아직 날짜나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홍태림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시거나 부족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희 위원** : 아니요, 잘 공유해 주셨구요. 이번 연구가 양성평등 관점이나 문제를 짚으면서 예술계에 대한 그동안 부정된 권력 등을 해체하고 다른 타 분야와 연계되면서 예술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런 성평등한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담론을 만드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또 나오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태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코로나 대응TF에서도 보고가 되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부장이 이야기한 대로 문체부와 협의하여 간담회 때 혹은 차기 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3개의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함께 묶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이어 TF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2022년도 코로나19대응TF 11차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2월 28일에 코로나TF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3가지 안건이 논의되었는데요. 아르크현장 대토론회 때 나왔던 워드 코로나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당시 12월 30일에 문체부장관과 예술위 위원 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제안하실 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해서 장관간담회 때 활용했던 부

분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내부 워크숍 진행방안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부 워크숍 진행방안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와 2021년도 초에 계속 작업을 진행했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부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시작으로 내부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 기존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 아이디어나 전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1월에 일정을 잡지 못하여 정유란 팀장께서는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외부 공론화를 하든지 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10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안전에 대한 논의입니다. 다만, 1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연취소 보상이나 그 외에 예술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자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라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내용은 장관간담회 때 내용이 있어 당시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유란 코로나 대응TF팀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할 것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란 위원 :** 부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내용은 공유가 되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부로 발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연이어서 5차, 6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개최 결과를 정책혁신부장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가 12월 2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역시 장관 간담회 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위원회가 국회에 제의한 사회적기업 사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장관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안정 재원 확보 역시 장관간담회 때 이 내용이 논의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서 예술위원회는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워킹그룹을 진행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을 장관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두가지를 30일 간담회 때 반영하여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 기관장의 건과 관련하여 내용을 말씀드렸고 TF 과제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TF 과제 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먼저 과제를 크게 재분류해서 첫 번째 과제로는 피해자 관련 소통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자는 차원에서 나머지 과제가 정리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6차 블랙리스트 TF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의 안건은 “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과의 소통 방안을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직원 대상 내부 소통프로그램 논의였는데요. 사실 TF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뭔가 자연스러운 방법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TF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될 4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블랙리스트 TF의 계획은, 일단 시기와 대상,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등 3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시기는 2월 정도에 관련된 저희 피해자분들과 어떤 소통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게 시작되면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해 보자.” 그 대상은 저희가 백서에 제시된 대로 예술위원회와 관련된 쟁점사업 6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간담회를 진행하되 중간 중간에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여지를 열어두고 간담회 규모를 키워나갑니다. 중간에 정책 포럼을 한다거나 연말에 이와 관련된 토론회나 간담회까지 개최를 해서 조금씩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TF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1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내부 소통프로그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같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런 일을 이끌어 나갈 때 저희 정책혁신부에서 겸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담인력에 대해 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TF팀장님께서서는 강조하실 말씀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완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요약 잘 해 주셨고요. 저는 전담인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TF는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5월에는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조직은 추후에 상설위원회나 특별한 방식으로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전담인력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예술위원회가 피해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예술위의 블랙리스트 이후 6회 정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계에서는 여전히 우리 예술위에 대해서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TF가 생긴 것인데요.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으로 1인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술위원회의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간담회나 소통을 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데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소통이 일정 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3가지 차원에서 전담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신뢰와 안전과 지속성이 보장된다고 느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위 차원에서도 진정성을 표명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안심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예술위에는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파트에서 업무는 과중되고 인력은 필요한데 우리 TF에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는 옵션을 만들어서 추후 구체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인력 필요와 관련해서 정유란 위원님께서 피해자 관점에서 호소력 있는 말씀을 7차 위원회에서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정유란 위원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에서 피해 당사자 역할을 맡고 있는 정유란입니다. 이번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민사 건에 승소 판결이 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TF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는 굉장히 커다란 조직이고 견고하며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자와 소통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소통과 논의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논의가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이 될지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시 조직이 아닌 TF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누구와 소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위원회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현재 있는 부서에서 임시적으로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업무가 부가되는 형태가 아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정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사업 등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정숙 위원 :**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 건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 옵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소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7차 회의는 다음에 보고가 될 것 같은데요. 7차 회의에서 “개방형으로 포럼을 한다.” 혹은 아까 정창호 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6개의 사건 중심으로 단체와 접촉해서 간담회를 한다.” 등의 안을 논의했고요. 이런 안을 우리 내부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이행협치추진단과 민간 소송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쪽의 분들과 2월 중에 사전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해서 피해자 소통과 관련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6차, 7차 청년예술TF 개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큰 내용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TF 6차와 7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 드리면, 지난 1월 24일에 8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회의결과는 6차와 7차까지만 준비된 상태인 것으로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차, 8차 회의에서는 예술위 중기사업계획안 첨부자료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셨겠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있듯이 2022년 예술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미래예술캠프'를 중기사업계획안에 올리는 작업과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차년도 예산에 올려보는 것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 수행해야 할 과제로 '미래예술 10대 제언'과 청년 참여라든지 성평등 관점에서 위원 선임과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중심으로 정리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전담부서가 최근에 구성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술인력양성부 측과 예산까지 고려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조율해서 정리된 내용은 2월 전체회의에서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청년예술TF 회의 개최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제 다원예술 2차 TF가 나주 본관에서 있었습니다. 문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오늘 위원회에서 일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총괄부장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TF팀장이신 박경주 위원께서 보완할 말씀과 강조할 말씀이 있으면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보고 내용에 다원예술TF 1차, 2차 회의가 빠져 있는데요. 2월 회의 당시 1차와 2차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예술TF 1차 회의는 지난 1월 14일에 개최되었고요. TF위원 총 7인 중에 5인이 참석하셨습니다. 두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번 입장문 관련한 후속조치 그러니까 TF에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들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2022년도 다원예술지원 공모계획(안)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TF에서도 모두 동감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가장 급한 것은 현장에서는 공모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2차 회의는 1월 26일에 나주에서 있었습니다. 총 6인이 참석을 하였고요. 논의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먼저 지난번 후속조치 중에 하나로 제시했던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포함한 진행경과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예술인복지재단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후속조치에 포함되어 있었던 다원예술 관련된 연구진행 계획과 포럼을 개최하는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6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 사무처에서 올해 공모계획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TF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2월 중에 공모계획안을 마무리하고 2월 전체회의에 안건을 의결한 후 바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16일 3차 회의 이후에도 곧바로 일주일 내에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모계획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주 TF팀장님께서 보완하거나 강조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사실 지원총괄부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짧은 기간에 회의를 2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총괄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최우선으로 2022년 공모에 조금 더 집중해서 2월 말까지 의결을 받고 3월에는 공모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 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4개의 TF 보고를 모두 받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와 TF활동은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어바웃 소위’라는 소식지를 만들어서 부지런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받아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자구적 노력도 있고 정책혁신부장이 전체 소위원회와 TF 모두를 관장하시며 동력을 내고 있어서 소위 활동과 TF 활동이 우리 위원회 활동의 또 다른 근거임을 충분히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1차·2차 진행된 다원TF 역시 2월중 공모라고 하는 과제와 작년 사업 이후에 후속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문제제기가 된 대로 전담인력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오늘 위원회에서 확인되는 듯 하고요.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회 문제제기를 받은 부분들을 실무 부서와 긴급하게 협의하여 2월 간담회 때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즉시 보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다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괄해서 3개 소위원회 개최결과와 4개 TF 개최 결과보고를 일괄해서 접수받을까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이의가 없으므로 모두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하여 오늘 준비된 9개의 보고안건을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자료가 준비된 8개와 오늘 회의에서 추가 보고한 1개의 보고안건을 포함하여 9개 모두 접수 받았고요. 논의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차기회의를 먼저 정하고 종료 후에 충분한 논의를 갖도록 제의합니다. 먼저 차기회의를 정할까 합니다.

(회의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 협조를 해 주신 덕에 3개의 의결안건과 9개의 보고안건을 모두 소화하여 제32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차 코로나(오미크론) 확산기를 맞이해서 1일 확진자 1만 5,000명에 육박하는 어려운 방역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환경은 예술계에 큰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명감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명절은 다가오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

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씀도 듣게 되는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은 새해를 예술계와 함께 맞이하자는 말씀을 덕담으로 드리면서 제32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폐회할까 합니다. 폐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회의종료)

